



2012년 임진년 새해 밝아 ... 공현진 수돗깨바위의 일출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앞바다에 있는 수돗깨바위로 희망을 노래하는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공현진리 수돗깨바위는 일출 광경이 뛰어나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일출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작은 사진은 수돗깨바위의 일출을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사진애호가들의 모습. 이들은 버스 2대를 동원해 현장을 찾았다. (사진제공 : 고성군청 남동환)

신년시

새 아침의 노래

황 연 옥

설레임 가득하던 하늘에
새 아침이 밝아 왔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넘쳐흐르는 은빛 햇살
가로수 가지마다 잉태되는
소망의 푸른 꿈

우리네 삶 속,
어지러운 물살로 흔들리는 해협
어느 포구,
소용돌이로 표류하던 상처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드넓은 세월의 바다에
견고한 금빛 그물을 던지자

이 한 해,
메달렸던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햇살 가득 안아
이웃과 높게 쌓은 불신의 벽을 헐고
남북으로 잘려진 아픈 허리를 다시 이어

통일의 노랫소리가
아득한 수평선까지 울려 퍼지도록
힘차게 새 아침의 서광을 열자!



-고성고(10회), 춘천교대, 숙명여대학교육대학원 졸업.
-1990년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상 수상.
-현재 고성문화회 부회장, 부천 계남초등학교 교사.
△저서 : 시집 『흩어진 나그네의 꿈』 외 3권, 창작동화집 『땅꼬마 민들레』, 동시집 『감자 속에는 푸른 풀밭이 있나봐』 등.

“인정받는 최고의 해가 되었으면”

1988년생 용띠 함혜진씨 새해 포부 ...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객 응대

“2012년 용띠 해를 맞아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저에게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성군축협 예금계에서 일하고 있는 1988년생 함혜진씨(25세, 사진, 죽왕면 야촌리)는 임진년 용띠 해를 맞아 아무지도 응골찬 포부를 밝혔다.

고성군축협 금융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함씨는 차

분하면서 수더분한 성격으로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고성축협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직장 선배들이 간혹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귀염둥이 막내로서 선배들의 기분을 풀어 주는 등 직장내의 환경을 항상 밝게 만들어 엔돌핀을 생성시키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 있다.

“직장생활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다”고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다.

함씨는 그러나 “사회초년생이어서 그런지 감정조절이 가끔씩 되지 않아 불친절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며 “새해에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객을 대하겠다”고 했다.

함씨는 “2012년 새해에는 주



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현재 남자친구가 없는데, 새해에는 남자친구

도 생기길 바라다”고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다.

원광연 기자